

갈월중 김동환, 김지은 道대회 금

제30회 道학생체육대회 금2은1



갈월중 육상부 박창용 코치, 김동환(3년)이제경(1년), 김동환(2년), 진종철 감독, 김지은(1년), 송진원(1년), 현지영(3년)(左부터 반시계방향).

갈월중학교(감독 진종철) 육상부 선수들이 봄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2005년의 전망을 밝게 했다.

갈월중 선수들은 대한육상경기 연맹이 지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횡성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개최한 제7회 전국 꿈나무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에서 중등부 1학년 장던지기 여자부 이제경과 2학년 100m 남자부 김동환이 각각 2위를 차지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제30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육상대회에서는 2학년 400m 남자부 김동환과 1학년 400m 여자부 김지은이 각각 1위를 차지해 금을 획득했다.

송진원은 5,000m 1학년 남자부 위킴(W)에서 2위를 차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제7회 전국꿈나무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에서 김동환 선수는 200m에서 4위를 차지 아쉬움을 달렸다.

갈월중 육상부 박창용 코치는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선수들의 컨디션만 잘 조절한다면 올해 남은 대회들도 무난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체육회 우상돈 전무이사 취임

체육회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우상돈(53·사진)씨가 지난 11일 임용장을 받고 포천시체육회 전무이사에 취임, 체육회 사무국과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우선은 다음달로 다가온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포천시가 5연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 통합에 따른 운영을 위한 업무과외부터 하겠다는 우상돈 전무. "생활체육의 경우 기존의 동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범위를 확대, 요가 같은 정적인 부분도 발전시켜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다"며 "엘리트체육을 뒷받침 해줘야 할 체육회는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시민의 운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체육발전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포천전에 자전거도로가 개통되면, 자전거나 인라인을 즐기고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며 "모든 시민이 한가로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상돈 전무이사는 "통합에 따른 양국의 업무 혼선을 조정하고 체육회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화로운 체육회운영을 약속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9 포천시불림연합회 김형석 회장

학생·직장인·군인 대회 개최

포천시불림연합회(회장 김형석)는 운전, 신복, 포천, 송우리 지역에 위치한 불림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포천시생활체육연합회와 포천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이다.

2001년부터 포천시불림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김형석(51·사진) 회장으로 부터 포천 불림의 현황과 발전상을 들었다.

수년간 회장직의 공백 등 불림의 침체 속에 회장을 수락, 종목을 발전시켜보겠다는 결심을 통해 불림협회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김형석 회장을



김형석 회장 포천시불림연합회

점을 확대, 불림을 엘리트체육으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중이다.

"이해 관계가 있는 포천교육청과 협의해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불림의 발전과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학생 선수팀을 창단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현실 여건상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며 "우선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학생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학생대회 뿐 아니라 군인이나 직장인 등 특정층을 겨냥한 대회 개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포천의 경우 상당수의 직업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복 불림장의 경우 많은 군인들이 불림장을 찾아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군인 또는 직장인들은 업무이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도 많아 이들을 불림장으로 유도한다면 대회개최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천시불림연합회는 김형석 회장을 주축으로 한석기 부회장 이천순 전무이사 등 11명의 이사진이 포천에 흩어져 있는 불림장별 의견을 조율, 4백여 명의 클럽이 속한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김 회장은 "30년 전 만해도 불림장이 많았었다"며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포천의 불림인구는 어림잡아 4천여명은 족히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밝혔다.

포천시 불림연합회는 각종 대회에서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 김 회장이 취임한 해인 2001년에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포천시가 대회 4연패를 달성하는데 수훈 했다.

김 회장은 "운이 많이 따라 주었는지 회장직에 취임해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 기분 좋은 출발을 했었다"며 "이후 또한 번의 우승과 3위 회 4위 1회를 차지해 선수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경기도체육대회의 선전과 기대로 가일층 기대감을 갖게 된 불림은 김 회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김 회장은 "불림은 종목의 특성상 가족단위의 스포츠가 가능한 종목이라 현재의 체제는 주5일제 등으로 인해 회복될 것이다"며 낙관했다.

김 회장은 포천에 위치한 40여 개의 불림클럽이 주로 생활체육으로 치중된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2회 국민생활체육 포천시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소플클럽 종합우승

포천시배드민턴연합회(회장 양호식)는 지난 10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제2회 국민생활체육 포천시

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포천시 10개클럽 233개팀, 311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오후 11시 기념식을 전후해 저녁 9시까지 치러졌으며 종합성적은 ▶종합우승 소플클럽 ▶준우승 포천클럽 ▶3위 반월클럽이 차지했으며, 입상상에는 ▶

1위 은행클럽 ▶2위 이동클럽 ▶3위 초가클럽이 차지했다.

한편 이날 참가한 배드민턴 팀은 가산(회장 정상근), 반월(" 김광열), 소플(" 이종복), 은행(" 서성욱), 이동(" 김형석), 일동(" 구광식), 제일(" 이종구), 초가(" 전영운), 포천(" 박창희), 한미음클럽(" 박수형)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탐방 | 지역체육회 ⑨ 창수면 체육회 회장 김정수

민·관·군의 조화로 하나된 체육회



김정수 회장 창수면 체육회

포천시 체육회 창립 초반부터 설립된 창수면 체육회는 전직 면장 등이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오다 2003년부터 법인으로 출범, 내실 있는 발전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2003년 2월부터 창수면체육회를 이끌며 지역주민과 체육회의 조화와 단합을 위해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정수(47·사진) 회장이 포천에서 체육회의 현황 및 발전상에 대해 들었다.

김정수 회장은 창수면에서 (주)우정식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년 임

기의 체육회장을 연임하게 돼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수면체육회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총회원 61명으로 지역사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사위원 30명과 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창수면체육회는 군과의 협조 속에 기반시설의 미흡함을 보충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수 회장은 "지난해 제7회 민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백외리에 소재한 공평대 연병장을 활용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많은 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행사인 만큼 넓은 장소를 모색하던 중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사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창수면체육회는 올해 4월 4일 식목행사 당일에도 군부대연병장을 활용 체육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역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아 민·관·군의 협조체제 강화는 지역 의 단결과 화합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앞으로의 민민체육행사 등 지역내 각종 행사에 민·관·군이 함께 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도 창수면체육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를 중심으로 ▶7월의 체육회 단합대회 ▶체육특기자 격려금 지급 등의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수 회장은 체육회 운영에 있어 "올해 체육회가 집행하게 될 예산은 총 4천여만원으로 이중 시민의 날 행사에는 포천시 지원 2천만원과 자체예산 1천여 만원 등 총3천여 만원을 집행하게 될 예정이다"며 "체육회 운영을 규모 있게 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타당성 여부를 반영해 적절하게 집행하며 아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체육인 양성을 위해 창수·보장초등학교의 체육특기자 4~5명을 선발 매년 1인당 3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며 "엘리트체육양성을 통한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등을 통해이민 지역체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창수면에 소재한 체육시설과 소

속된 클럽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서 동호회 활성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고소성리와 오거리리에 게이트볼장을 통한 노인들의 체육활동과 최근 창단한 창수조기축구회가 활동하고 있다"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부분을 시도해 왔지만 빈약한 인적 자원과 운동장소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인 것은 창수면사무소에 마련된 건강증진센터가 작지만 대다수면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수면은 면장, 시의원, 이장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타지역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 회장은 "운영위원이나 이사위원들이 지역의 각종 행사 시 적극적으로 나서 진행하고 있어 늘 감사하다"며 "특히 창수면 이수한 면장을 비롯해 면 직원들이 순수 도와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의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는 선수선발부터 각종 준비 등, 각 마을 이장 등 면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 생산품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오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다회용품 포장지류

★ 용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 가공제품

스텐딩삼방, M자기공,
 스펀딩지퍼, T자기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포장기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